| 특별인터뷰 | 대전종친회 錦谷 權 泊 遠 會長

"맑은 마음(泊心)을 가지고 멀리까지 가려면(遠勝), 정도(正道)로 가라!"

대담 : 사무총장 권오운

權泊遠 會長

추밀공파 문중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만나뵌 대전종친회 회장 금곡 권박원 선생. 정헌공계 35세손이라 하는데, 항열자가 아닌 泊遠. 문득 제갈량이 54세에 8세난 아들에게 남기는 <계자서>의 한구절이 떠올라 아마 '淡泊以明志,寧靜以致遠-마음이 담백하니 뜻이 밝아지고, 차분하고 고요하니 생각이 멀리 미친다.' 여기서 '박'과 '원'을 따 온 이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뭔가 닮아가는 느낌이었다.

錦谷이 호인데 '비단 골짜기'라, 이 호는 다양한 방면의 훌륭한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 적인 것도 있지만, 종친회의 발전 방향과 권문의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뭐, 굳이 인터뷰랄 거도 없지만, 제가 있는 대전이 중간에 위치하여 항상 여러 족친님들을 만나고 또 뿌리공원, 효문화축제등 종친회와 관계 있는 행사가 많아서 참석을 권유하고 오시면 힘이 닿는 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지요."

·간단한 이력이라도 한 말씀을, 듣기로는 10년에 걸친 대단위 주택재개발 사업도 하시고..

"저는 대전 뿌리공원이 위치한 목달동에서 해방 바로 전해에 일곱 형제의 막내로 태어 났지요. 워낙 빠듯한 생활이라 공부를 깊게는 못했어요. 그래도 중학은 한밭중학 나왔지요. 그리고 육하으로 갑종간부217기로 임관 대위로 제대 했지요. 월남을 갈가하려다가 못갔지요. 군인으로 죽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 데, 중간에 공병 병과인 데, 기갑으로 바뀌면서 제대를 했지요."

·대전 뿌리공원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권씨 상징탑을 만들 때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대전에 족보 박물관도 있고 족보전문 출판사 回想社도 있고, 지리상 우리나라의 중심부이고 그래서 거기 목달동에 뿌리공원을 조성하면서 제가 대전에 살고 잘아니 그 뿌리공원 조성시 각성씨별 탑을 만드는 데 안동권씨를 가장 좋은 자리에 1호로 만들려는 생각에 문중에 제안을 하니 어르신들이 '그 무슨 쌍놈들과 같이 붙어서 우리가 그런걸 왜 세우나?' 고 해서 안 했지요. 결국 그 뒤로 권문의 아이들이 방문을 해도 왜? 우리 성씨는 없냐고 해서, 결국 세웠지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저 조형물은 영원히 남을 터인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그런가요."

·가을이면 매년 뿌리공원에서 '효문화축제'를 하고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는 데 대전종친회에서 매년 참가하여 재작년엔 우수상, 작년엔 최우수상을 타셨는데 올해의 계획은요.

"그것은 당연히 순서상(?) 금년에는 1등인 大賞이 목표지요. 상도 상이지만 족친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그를 통한 교류와 친목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해 바라고 싶은 것은 안동이 역시 우리 권씨의 중심이고 하니 거기서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계획은 대전종친회가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좀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석자등의 가장행렬 비용과 유니폼 정도에 소용되면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면서 1팀당 200만원 정도의 찬조가 있으면 그 중 대부분은 당일 참석자 접대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전은 대전대로 접빈객이 되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대로 인사치레가 되는 것이지요. 방법은 주된 연출은 대전종친회가 연습을 하여 나오고 뒤에 각지의 족친님들은 유니폼을 입고 약간의 계획된 모션을 취하면서 행진하면 되지요. 행사도 행사지만 여기서 서로간에 얼굴도 익히고, 모임도 즐기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사시리즈 특별전에 '權門四始'가 책자로도 나오고 안동 종친들의 관람도 있고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작년 초인가 오셨는 데, 너무 늦게 오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요. 역시 권문의 자랑인 四始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행사 주최측에 주어서 정리하고 그랬지요. 교육적으로도 좋고 하여간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이 권문사시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료는 제가 드리지요. 여기 이 책 「권문사시 전시 기획展 사진집」을 우선 보시고요."

·금년부터 (성씨의 날)이라고 정해서 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데, '권씨의 날'은 6월 5일로 하기로 하였는 데 회장님이 정하여 추천했다면서요?

"그것이 6월6일 앞뒤로 황금 연휴고 해서 5일로 정했는 데, 관심있는 족친들의 참여가 요망되지요. 그런데 이날 어떤 행사를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니 고민입니다. 넓은 광장이나 전시장을 이용하여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데, 권문의 특색을 살리고 어필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해야는 데, 엄마 남지도 않았지만 막막할 뿐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이고 앞서 다른 성씨가 행사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뭐 뚜렷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여간 급히 연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족친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번 안을 내 보시지요."

·제3회 지역종친회 협의회가 3월 22일 대전에서 열리지요. 대전이 지리상 그렇다보니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면에서 수고스러운 면이 아무래도 많겠다고 생각 되는 데요.

"아~ (웃음) 솔직히 그렇기는 해요. 손님 접대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람이 만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접빈객 봉제사'가 선비의 도리이고 양반의 의무이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의를 다해야지요. 뭐, 그것이 종친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역종친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거기서 분담된 역할을 대변관계인 지역종친회가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약속한 분량 만큼 이행하게되고 그러면 전체 종친회가 발전 하는 것이지요."

·이번 춘향제에 대전종친회가 비용 900만원을 쾌척하셨는 데요. 족친들 간에 칭송이 자자 합니다.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래도 흐뭇하지요. (빙그레) 조상을 모시는 데 누가 얼마를 낸게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창찬은 조상님들한테들으면 고마운 일이고 그런 것이지요. 대전이 선물도 있고 하여 뭐 좀 남보다 낫다기 보다 그냥 저냥 돌아는 거죠. 그런데 대종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고 또 이걸 전례로 삼아 다른 종친회에서도 많이 하겠지요. 저도 7형제의 막내지만 제가 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데, 그건 집안 사정이니 그렇다 해도 '내가 그나마 조금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으니 하는 것 이지요. 조상 모시는 데 무슨 이유가 있고 조건이 따릅니까?"

·종친회가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여 산만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주제 넘게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할 뿐이지요.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몇 마디 올린다면, 권씨는 안동이 本이고 거기에 조상이 계시고 그 지역에 모든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조님의 제사를 모시는 일은 '대종회'의 회장이 모든 잡례를 책임지고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태사묘에 그 중심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별 종친회, 지역별종친회, 직능별종친회,연령별 종친회, 각종장학회, 각종기념사업회 등은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조정하고 통합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원에 있는 것이니 '大宗會'이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젊은이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알고 권문에 대한 자랑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해야지요."

·지금 '대종원'은 사업부를 신설하고 5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동문인회의 창립과 기록사업, 수익을 위한 종친신용카드사업, 시조태사묘 아래 효 캠핑장 개설과 교육, 권말선생을 필두로 한 시비건립 사업, 그리고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펀드조성등인데요. 이 계획에 대해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요.

"몰론 좋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깊게 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너무 산만 하지 않을 까요. 실제 가능 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거 같군요. 솔곳은 끝부터 들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든 이들이 알도록 정리해서 발표하고 공론화 하여 검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뭐든지 시도는 좋은 것 이니까요."

·얼마전 '행주대첩제'가 행주산성에서 간단히 열렸습니다. 국난극복의 핵심인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데도 너무 초라하고 격이 맞지 않았는 데, 그래서 (재)행주대첩기념사업회를 권문의 대종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고양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한산대첩, 진주대첩 같은 국가급 행사로 하려고 하는데 조언하실 것이 있으시다면요?

"좋지요. 당연히 찬성합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것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지요. 이번 춘향제에서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거도 좋아요. 이것은 춘향제에 사무총장이 설명하신다니 그리 알고 좀 더 두고 보고 연구해서 말씀드리고 좌우간 좋은 일이라 봅니다. 이런 것이 추슨된 도리로 대종원이 해야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에 뿌리공원등 종친회와 관계있는 곳이 많습니다. 간단히 코스를 소개하여 주신다면요?

"뿌리공원, 권씨탑, 족보박물관, 遁山書院, 회상사, 화폐박물관등이 족친들의 방문코스로 알맞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 보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환영하고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 회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너무 없었어요. 생활 신조라던가 건강 유지 방법이나 자제분들 이야기 등등.

"자아 평범한 사람이 뭐 별게 있나요. 집사람은 대전시립 예(芮)씨이고, 뭐 중매로 결혼 했어요. 아들이 하나이고, 그래도 잘 커서 육군 대위 출신이고 지금은 소방공무원이지요. 아들이 아비를 대신에 못다한 군문에서의 꿈을 이루어 주었으면 했으나 제 뜻이 그러니, (아쉬운 표정), 그래도 며느리도 선생이고 둘이 공무원이니 안정되고 말없이 잘사니 그게 福이지요. 손자가 하나 있고요. 생활신조는 딱히 이거다 하적은 없으나 '正道로 살자!' 예요. 大道無門이라고 바르게 나가면 敵도 없고 일도 수월하게 풀리고 복잡한 게 없어지지요. 泊하면 遠한다. '뜻이 담백하면 그 가는길이 멀어도 이루고야 만다.' 뭐 이런 것이 탐까요. 사는 곳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대전 대흥동 아파트 단지예요. 그것이 저의 일생에 가장 보람차고 힘들었던 일의 하나로 기억되지요. 집사람과 둘이 살고, 다만 6년전에 위암으로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치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항상 음식과 술을 조심하고 있는 형편이고 운동은 '걷기'이지요. 그리고 군대 제대후에는 예비군 중대장을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10년 정도 하고 그것이지요."

·그 대흥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회장님과 관련해서 자주 인터넷에 검색되던데요. 그에 대해서는 염청나게 할 말씀이 많으실 거 같은데, 기자도 30여년전 직장주택조합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마는, 이 부분은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지요.

"휴~ (한숨) 그 뭐 2000세대 재개발에 감옥에 안간건만도 다행이지요. 기자가 이미 다 경험하고 검색해 봤다니 다 잘 아실 테고, 자기 변명을 조금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은 남이 잘되는 거 못보잖아요. 그런 측면이 우선이고, 내용은 내가 경조비로 쓴 것이 조합비로 썼는 데 그것도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조합원인데 그게 몇 년 모이니 금액이 돼되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별 탈 없이 다 잘되었고 지금은 중심가에 지에스자이 아파트라고 우뚝 솟아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투듯해 하지요. 솔직히 다시 그런 일을 하라면 안합니다. 얼마를 벌던간에요. 10년이란 인생의 기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보낼 이유가 없지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한 번 大担으시면 대흥동 와서 봐 보세요.'

·박지우십 원승천리 박이지지 원이치지(泊志于心 遠勝千里 泊而知之 遠而致之) 라! 는 말씀을 덕담으로 올리면서, 부디 건강시고 권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 별 말씀을요. 대전 뿌리 공원에 오시면 언제나 저를 찾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리: 권오철 기자〉

능동장학회 이사회 개최

2017년 4월 21일(월) 오전11시 서울충무로대림정 한정식 식당에서 안동권씨대종원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정달)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정원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 보고후, 권정달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권오운 사무국장은 회의자료에 따라 2016년 예산결산내역,기본재산, 삼성연금보험가입,2017년 장학금 지급계획, 이사 및 감사 임기 현황, 장학회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권정달이사장은 기금을 많이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폭 넓게 수혜를 받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앞으로 장학금을 20~30억원 정도 확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자고 하였다.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권정선 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맛있는 한정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이사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식비는 권정선 이사가 내었다.

· 동정

권민희 연성대 제4대총장 선임

연성대학교 제4대 총장에 권민희(都·사진) 교수가 선임되었다.신임 권 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에 연성대학교로 부임해 대외협력부단장, 기획부실장을 거쳐 현재 대외부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한편 1977년에 개교한 연성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는다.

연성대학교(硏成大學校, Yeonsung University)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34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전문대학이다. 1976년 12월에 권상철(權相鐵)이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79년 1월 1일 안양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했으며, 1990년 3월 1일 안양전문대학으로, 1998년 6월 1일 안양과학대학으로, 2012년 5월 1일 연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14년 12월 현재 총 2·3년제 7개 학부, 29개 학과와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경영학과, 건축학과, 유아교육학과, 호텔조리학과, 군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6개 학과로 구성된 종합 직업교육 중심대학이다.

연성대학교는 대외 교류도 활발하다. 총 8개국 22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권오섭 엘엔피코스메틱의 총괄대표 회장 취임

엘엔피코스메틱은 17일 권오섭 총괄대표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권오섭 회장은 2000년 엘엔피코스메틱을 창업했다. 2012년엔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메디힐'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팩의 대중화와 고급화에 이바지했다. 메디힐은 지난해 마스크팩 단일 품목으로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권순채(시인) 제1회 자랑스런 '경주문화인상' 에 선정

경주문화원(원장 김윤근)은 지난달 25일, '자랑스런 경주문화인상'을 제정해 그 첫 수상자로 향토문화지킴이이자 시인, 농부인 권순채(64,내남면 이조1리)회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권순채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고향 향토사 연구를 거듭하면서 1985년부터 사라져 가는 경주의 고유한 방이름, 동제, 전설, 방언, 나무 등과 문화유적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9권의 책을 냈는데 모두가 노동현장을 발로 뛰며 땀흘려 돈을 마련해 책을 낸 것이라 더욱 값지다.

권일용 경감 4월말 명예퇴직

국내 1호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경찰청 범죄분석팀장(53·경감)이 30일 경찰복을 벗는다. 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지 17년 만에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정년을 8년가량 앞두고서다.그는 1988년 8월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1993년 감식요원으로 과학수사 분야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팀에서 심리분석을 맡아 1호 영예를 달았다.

웃음 띤 얼굴 행복한 인생

웃 음 감 부

海史 권오운 지음

행복하고 싶다면 웃어라. 그것도 크게 소리내어 웃어라.

문학바탕

저자 권오운(대종원 사무총장) 족친은 검교공파 35세입니다.

권당 12,300원이며 10부이상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연락처:010-3170-0962